

# 한나라당 시장·지사 입지자 “복적 복적”

### 광주 정용화·김광만·조홍규, 전남 김문일·김기룡 등 5명 출마 준비

### “10% 득표 가능” 당차원 특별 지원, DJ·노무현 영향력 약화 판단도

한나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이 한껏 고무됐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는 물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감을 찾느라 애를 먹었는데, 올엔 시장·지사 입지자만 8명이나 되서다.

한나라당 한껏 고무=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광주·전남 당사도 북적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16일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3명이나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며 청와대에서 유일한 호남지역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오는 22일 사표를 낸 뒤 23일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다. 정 비서관은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당 광주 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11%의 득표율을 얻은 정도로 광주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여기에 김광만 현 광주시장 위원장, 조홍규 전 국회의원이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하거나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욱 전 시장 위원장은 출마의사를 접었다.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군도 5명이나 된다.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기다. 벌써 일부 후보가리 신검전도 펼쳐지고 있어 과열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통합위원장이 지난 11일

한나라당에서는 처음으로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몽준 대표 계열로 분류되는 김 당협위원장은 “당의 핵심인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공천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기룡 현 전남도당 위원장도 전남지사 출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남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중앙당과 협의해 출마 선언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MB맨’으로 불리는 영광출신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본인의 부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며, 박재순 최고위원과 당 고문인 유준상 전 국회의원 등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의 경우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다음달 중 전라공천을 통해 양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이례적으로 다수 후보가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경우 한나라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한나라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경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10% 득표 가능하다”=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하나같이 선전 가능성을 앞세운다. 김대중·노



“지방선거 인재영입” 한나라당 정몽준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 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난 선거에서와 달리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앙당의 지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특히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여당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고, 한나라당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릴 경우 지방선거 이후 당내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도당 관계자는 “야당 10년 동안 한나라당 불모지에서 숨을 췌어왔지만, 이제는 여당인 만큼 광주·전남에도 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의 민심도 상당히 변해 이번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다고 보는 후보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지방선거 핫코너

### 정용화 26일·내달 2일 출판기념회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2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과 1층 대회의실과 다음달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코리아인 드림’ ‘광주의 꿈’ 등 2권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강진 출신인 정 비서관은 서울대 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민연대 자문위원, 광주·전남 비전 21 포럼위원, 국제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 주승용 “4대강 사업 큰 재앙 우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최근 영산강 나주 죽산보 건설 현장 인근 침수사고와 관련, “4대 강 사업의 속도전이 부른 사고도 더 큰 재앙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 죽산보 건설현장 발 10ha가 지난 12일 10여 시간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 사고는 죽산보 공사를 위해 강물을 돌려 빼는 우회 수로에 부유물질이 쌓여 물 흐름을 막은 데다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뚝을 넘어 논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찬용 “6·2선거로 시민 자존심 찾자”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인년 새해 단배식을 했다.



정 예비후보는 선거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단배식에서 “광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향, 예향, 미향 등 바람직한 정체성이 퇴색해가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를 다시 광주답게 만들어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자”고 밝혔다.

### 임성훈 21일 출판기념회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임성훈 전 경기도벤처협회 회장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나주 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위기는 기회이다’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임 전 회장은 이 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도전과 위기, 희망찾기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경험과 나주 사회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글로 담았다.

임 전 회장은 “벤처 신화를 일궈낸 글로벌 마인드를 나주 사회에 접목시켜 나주 신화를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여론조사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사라질까

### 15일부터 '2일전 신고의무화' ... 각 후보캠프 촉각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가 지난 15일부터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각 후보 캠프가 고민에 빠졌다.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해 오던 각종 여론조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 이틀 전까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 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야간 여론조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던 불

법 선거운동도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 및 선거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체 여론조사 등은 자체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전 신고한 캠프나 여론조사기관은 한 곳도 없다”면서 “법이 개정된 만큼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와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명박 대통령

### 설연휴 백내장 수술

이명박 대통령이 오른쪽 눈에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면서 “설 연휴 기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백내장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서 수술 경과도 좋고 통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리하면 좋지 않다는 주치의의 설명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경을 쓰고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했으며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공무원 정치 참여’

###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넘겼다.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당 가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무원이 퇴근했다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고모이 3월 2일 시작반** / **9급 야간반** / **특별기획특강** / **모의고사 9급 문제풀이**

»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호남유일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9급 야간반 개설** /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소방직** (모의고사) / **소방직** (모의고사) / **소방직** (모의고사)

**마김유의 현재수강접수중** / **한빛고시학원** / **광주 북구청앞** / **234-0234**